



고창소방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간담회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을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4대 중점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현장 초기 대응체계 개선 △기관 간 실시간 상황 전파 및 공조 체계 강화 △효율적인 차량 통제 및 우회 유도 방안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성화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전자들이 사고 직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소방서, 구급대 팀워크 훈련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24일 장수한누리리전당 주차장에서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높이고 자발순회화복복(ROSC)을 향상하기 위한 '구급대 팀워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농촌 지역 특성상 병원 이송 거리가 멀어 현장 대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장수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심정지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구급대와 펌블런스 대원 간의 완벽한 '원팀(One-Team)'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는 장수와 번암 구급대, 장수 펌블런스 팀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전문소생술(FALS) 매뉴얼에 따라 고강도 실습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원별 명확한 역할 분담 △정확한 가슴 압박 및 고산도 기도 유지술 △현장 전문 의약품 투여를 위한 정맥로 확보 등 실무 위주의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구급대장과 품질관리 담당자가 교관으로 참여해 훈련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대원들의 처치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하며 현장 대응의 빈틈을 메웠다. /장수=고관호 기자

20년간 무주 지역 안전 지켜온 공로 '인정'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김용찬 고문, '국민포장' 수상 영예

무주소방서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김용찬 고문이 서울시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인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용찬 고문은 2006년 입대 후 약 20년간 무주 지역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용찬 고문은 각종 화재 현장은 물론,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등 재난의 최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활동했다. 특히 지역 지형에 밝은 감점을 살려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율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도 앞장섰다.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에는 대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용찬 고문은 "이 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대원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문의 자리에서 무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이음소아청소년과의원 한민정 원장,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에 지역 의료인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이음소아청소년과의원 한민정 원장이 소아신경환자의 진단과 치료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식은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의협력홍보실장, 김소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김선준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신경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환자들의 진료비와 치료비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민정 원장은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임상 경험을 쌓은 뒤 현재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원장은 "이번 나눔이 소아신경환자들에게 힘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달받은 기금은 소아신경환자의 진료환경 개선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원장은 "이번 나눔이 소아신경환자들에게 힘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달받은 기금은 소아신경환자의 진료환경 개선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2026년 119청소년단 모집

남원소방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전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역 사회의 안전 문화를 견인할 '2026년 한국 119청소년단'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남원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19청소년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남원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민 안전 캠페인' 주도 △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안전 지도' 제작 △실전 같은 소방 장비 체험



및 기초 응급처치 훈련 등이 포함된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활동에 필요한 정품 물품(단복, 모자 등)이 제공되며, 오는 8월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열리는 대규모 안전 캠프에 참가해 타 지역 단원들과 교류하며 협동심을 기를 기회도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시장애(애) 빠지는 날' 사업 운영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은주)는 관내 전통시장인 용남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시책인 '시장애(애) 빠지는 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죽향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를 실천함으로써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3월 25일(수) 진행된 행사에도 죽향동 전 직원이 용남시장을 찾아 장보기에 동참하고, 시장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시책은 현장에서 상인과 이용객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에 방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내장상동, 민·관 합동 봄맞이 대청소

정읍시 내장상동은 지난 25일 관내 주요 도로와 마을 곳곳에서 민·관 합동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에는 내장상동 직원들과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주요 기관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이번 청소는 겨울내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해 쾌적한 마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관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비에 힘썼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순창 학생들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26일 아침에 순창고(학교장 양동준)와 순창북중(학교장 강두희)에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직원들과 순창군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순창 쌀로 만든 백설기와 식혜를 직접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335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